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말뿐인 “유감·사과” 말고 진참회 하길

9월 9일 불교계의 종교편향 시비에 침묵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불교계에 건넨 말은 “유감”이다. 오후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불찰’이라 발언했다.

흥미롭게도 불교계에 유감을 전한 이 대통령 발언 수위는 외교언어 단계와 유사했다. 외교상 유감은 4단계의 영어 표현으로 나타난다. ‘예의주시한다’는 정도의 ‘not indifferent’가 1단계, ‘미안하다’는 정도의 ‘express concern’이나 ‘sorry’가 2단계, ‘사과’나 ‘사죄’할 것까지 없는 유감은 ‘regret’로 3단계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뜻이 내포된 ‘apology’는 4단계의 유감표현이다.

불교계를 살피며 차근차근 1~2 단계를 밟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9월 하루 동안 3~4단계를 모두 보였다. 오전 ‘유감’ 표명 후에도 불교계 성토가 끊이지 않자,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4단계의 ‘불찰’ 카드를 내놨다. 불교계가 줄곧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계산적인 정치적 수사의 결과였다.

대통령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 보인 유감 표명에 불교계 자존심은 그슬릴대로 그슬렸다. 종교편향 정점에 선 대통령 마인드가 이렇다보니 수하의 여청수 경찰청장이라고 다를 리 없었다. 참회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일이다. 죄 지은 비구는 참회할 때 참회오법(懺悔五法)을 따른다. 오른 어깨를 드러내 경의를 표하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대비구 발에 걸고, 범한 죄명을 말하는 것이 절 집안 참회예법이다.

한때 불자였던 여청수 경찰청장은 8월 14일 주요사찰 주지스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진참회(眞懺悔)로써 불교계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라고 적었다. ‘진참회’를 언급했던 여청장이 9월 10일 대구 동화사를 찾아 지관 스님에게 합장도 않은 채 다가 “큰스님 저 왔습니다”하며 덩실 손부터 잡아 보였다고. 이어 막무가내로 공양간으로 스님을 찾아 들어가려던 여청장 때문에 동화사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참회오법의 예는 고사하고, 참회의 마음가짐조차 안된 오만불손한 모습에 불자들은 또 한번 상심했다.

<육조단경> 참회품에서 “참(懺)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이요, 회(悔)는 다음에 오기 쉬운 허물을 조심해 미리 깨닫고 아주 끊어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라 했다. <천수경>은 “죄와 마음이 모두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진참회(眞心滅罪)라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청수 경찰청장은 ‘유감’과 ‘사과’만 말하지 말고,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게 진참회하길 바란다.

환경단체 “케이블카 안돼”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이명박 정부 개발논리에 편승한 자사의 케이블카 사업에 불교계가 환경단체 등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케이블카로부터 수행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딛었다.

불교환경연대(상인대표 수경와)가 자산도립공원-밀양 얼음골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 불교계 연석회의 등 불교계 단체와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준하), 국립공원유지하는시민의모임(상인대표 유정철) 등 35개 단체는 9월 9일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자연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건설이 이명박 정부 환경정책의 현주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행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김혜애 협동사무처장(녹색환경연대)이 낭독한 출범선언문에서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는 “성장과 개발 담론이 자연공원에도 케이블카 건설이라는 모습으로 광풍처럼 밀어닥치고 있다”며, “케이블카 건설시도

가 자연공원법 개정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고했다.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는 이어 “케이블카는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훼손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케이블카가 경제성이 높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환경보존시설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 설명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자연공원 7곳 케이블카 적자인 상황에도 이명박 정부 개발논리에 따라 케이블카 건설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빛어질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출범선언에 앞선 각계 의견발표에서 윤준하 사무처장(국립공원유지하는시민의모임)은 “1990년대 일본에서 케이블카 붐이 일어났지만 홍물로 방지됐던 것을 2008년 하코네 국립공원서 철거되기 시작했다”며,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의 부당성을 토로했다.

임희자 사무국장(마장진환경연합)은 “2000년 이후 가자산-얼음골 케

이블카는 수차례 사전환경성검토 등에서 부당함이 지적돼 사업폐기 단계였다”며, “이명박 정권 개발논리에 휘둘러 다시 가자산-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의 망명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정우식 사무처장(불교환경연대)은 “케이블카는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이 아니다. 불교계도 환경단체와 힘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반대전국대책위원회는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9월말 설악산·내장산 등 현행 케이블카 운영 공원 실태조사 자료집을 발간하고, 가자산 등 예정지 조사를 통해 불가사유의 타당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선언식 후에는 ‘자연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주경 스님(조계종 환경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조계종 승려들은 수행자임과 동시에 자연유산 상속인”이라며, “케이블카 건설로 수행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조계종, 올림픽 불자선수단 환영 법회 조계종은 9월 9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불자 선수단을 초청해 환영 법회를 열고 선수와 임원 100명에게 감사패와 순금목탁 및 격려금을 수여했다. 박재원 기자

종교 지도자도 ‘종교평화’ 한목소리

천주교·원불교 대표 9일 지관 스님 잇따라 예방

천주교, 원불교 지도자들도 ‘종교 평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천주교, 원불교 대표자들의 잇따른 예방을 받고 종교평화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9월 9일 오후 3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장익 주교,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주교가 함께 방문했으며, 45분뒤에는 이성택 교정원장이 예방했다.

장익 주교(천주교구장)는 “최근 종교차별과 관련하여 천주교도 걱정이 많으며, 길게 보면 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일부 배타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다.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내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개인의 종교는 존중돼야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일로서 나라가 불행한 일이다”고 지적

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리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장익 주교는 4대종교 성직자 촉구대회, 교구의 신부·수녀들에게 <선가귀감> 책선물 이야기, 오래전부터 불교공부를 하고 불교 인사들과의 연이 있었음을 소재로 환담을 나눴다.

곧바로 이어진 예방에서 원불교 이성택 교정원장은 “이처럼 종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마음 깊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종교의 뿌리와 가르침은 모두 통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관이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주교 대표 예방에는 주교회의 사무국장 변승식 신부, 원불교 대표 예방에는 김대선 문화사회부장인 배석했으며, 조계종에서는 사회부장 세영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이 함께 자리했다. 김성우 기자

전통불교문화센터 상량식...12월 개관

2만5천㎡면적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9월 10일 마곡사 인근현장(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신재민 문화부 2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불교문화센터’ 상량식을 봉행했다.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센터가 준공되면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과 각종 교육 및 수행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센터건립으로 인해 많은 내외국인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센터건립으로 인해 많은 내외국인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오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전통불교문화센터는 총면적 2만5천㎡에 숙박동과 교육행동동 등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다.

김성우 기자

“출가발심 정각으로 이어지길”

제35기 행자교육원, 사미·사미니계 138명 수지

예비승려교육을 마친 행자들이 수계를 통해 예비승려로 다시 태어났다. 9월 8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불행된 제35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에서는 138명의 행자(남행자 67명, 여행자 71명)가 사미계·사미니계를 받았다.

138명의 사미·사미니는 8월 17일 입교 갈마를 통과한 140명 행자들 가운데 23일간 예경의식과 작법, 부처님 생애와 기본교리 등을 교육 받고 9월 7일 ‘5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행자들이다.

정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은 회향사에서 “법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을 축하한다. 법에 의해 생각하고 법에 기초한 행동을 하라”고 격려와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사미·사미니계를 수계한 예비승려들은 앞으로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대학, 기본선원 등 종단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간 수학한 후 4급 승가고시를 거쳐 정식 스님(비구·비구니)이 된다. 조동섭 기자

관한 행자들이다. 정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은 회향사에서 “법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들을 축하한다. 법에 의해 생각하고 법에 기초한 행동을 하라”고 격려와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사미·사미니계를 수계한 예비승려들은 앞으로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대학, 기본선원 등 종단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간 수학한 후 4급 승가고시를 거쳐 정식 스님(비구·비구니)이 된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종회의원

보결선거 현조스님 당선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결선거에서 현조 스님이 당선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9월 10일 조계종 제5교구분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결선거에서 28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83명이 투표에 참가해 91표를 얻은 현조 스님이 90표를 얻은 현관 스님을 1표차로 제치고 당선을 결정지었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임시 중앙종회 개최

제178회 조계종 중앙종회(총회의장 자승) 임시회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직자 종교편향과 관련한 현안을 비롯해 사람부동산관리법 개정안과 사찰등록관리법안 등 중점 제·개정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43)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공

지

대한불교원효종

..... 다 음

1. 갱신범위 :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2. 갱신기간 : 2008년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수 수 료 : 총무원으로 문의
4. 문 의 처 : 서울연락사무소 02)735-0501~2
총무원 052)262-6857

※ 재정비 후, 원효종 전 중도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김윤철(향운)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딛고 종단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몇몇 스님들의 노고로, (2007라1580) 2008년 8월 25일자로 김윤철(향운)스님을 임시 종정으로 정함에 따라 종단에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윤서(용일)스님 측, 최병일(덕산)스님 측, 우종산(청은)스님 측 등의 위촉·임명 또는 임원·의원 등 모든 임원의 직책은 법적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중무행정 질서를 재정비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